미코바타 주철교와 하부치 주철교는 ‘광석의 길’ 중간에 놓인 다리로 1883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각각 1885년, 188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광석의 길’은 아케노베와 미코바타 등의 광산촌에서 채굴, 선광된 광물을 이쿠노로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채굴 기술의 향상으로 수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가장 내구성이 있고 광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소재인 주철로 다리를 제작했습니다.

미코바타 주철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전체가 주철로 제작된 다리이며, 철제 다리로는 3번째로 오래된 다리입니다. 다리는 에펠탑보다 이전에 세워졌지만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인 설계자의 지도하에 일본인 기사가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요코스카 제철소에서 주조된 부품은 ‘은의 마찻길’을 통해 운반되어 현지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원래 미코바타 주철교와 하부치 주철교는 모두 마루야마강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태풍 피해를 입어 수리가 필요했고, 홍수 방지를 위해 하천 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부치 주철교는 이축되었습니다. 미코바타 주철교는 원래 자리에 남아있으며, 1977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